

LG화학 '생명과학' 연매출 1조 돌파... 신성장동력 자리매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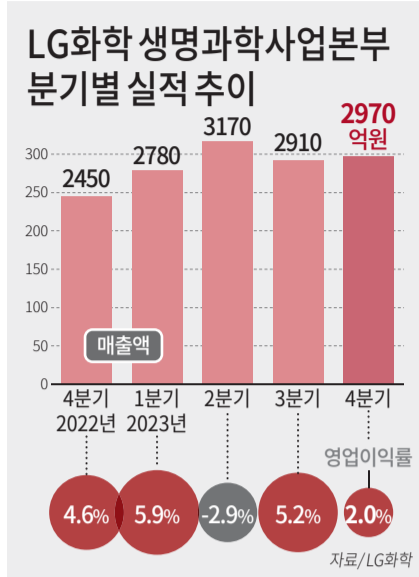
작년 생명과학사업본부 매출 전년비 30% 성장 1조1834억

주력제품 성장·인수합병 '효과'를 매출 1.3조 목표, R&D 확대

LG화학의 '생명과학사업본부'가 회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LG화학은 지난 2023년 연결 기준 실적으로 매출 55조2498억원, 영업이익 2조5292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8.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5.1% 감소했다.

특히 LG화학은 글로벌 경기 침체, 전가차 수요 성장세 둔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신성장 동력 발굴 육성에 주력한 결과, 생명과학사업본부가 첫 연간매출 1조원 시대를 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LG화학에 따르면 생명과학사업본부의 2023년 매출은 전년 대비 30% 성장해 1조1834억원이다. 영업이익은 245억원이다. 지난 2022년의 연매출은



9100억원 수준이다.

2023년 4분기 기준으로 LG화학 생명과학사업본부의 매출은 2970억원, 영업이익은 60억원이다. LG화학 생명과학사업본부는 2023년 1분기 2780억원, 2분기 3170억원, 3분기 2910억원 등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왔다.

이러한 호실적의 바탕에는 성장호르몬제 '유트로핀', 당뇨병 치료제 '제미글로', 엔브렐 바이오시밀러 '유셉트' 등을 비롯한 주력 제품들의 성장을 비롯해 아베오 파마슈티컬스 인수합병이 주요했다.

국내 최초 성장호르몬제인 유트로핀의 경우 지난 2023년 상반기 국내 성장호르몬 시장에서 점유율을 44%를 차지하기도 했다.

또 LG화학은 지난 2023년 1월 아베오 파마슈티컬스를 인수했다. 당시 아베오는 신장암을 표적으로 하는 치료제 '포티브다'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획득하고 매출 성장을 확보했다. 포티브다는 지난 2022년 신약 출시 2년 만에 1300억원의 매출을 돌파했다.

이후 포티브다는 지난 2023년 전년 대비 53% 늘어난 2000억원대 매출을 달성했다. LG화학은 중장기적으로 포티브다의 매출이 오는 2027년 4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화학의 생명과학사업본부는 연

구개발 영역에서도 임상 단계 파이프라인의 성과를 이뤘다.

통풍 치료제 신약 '티글릭소스타트'는 주요 시장인 미국을 포함한 다국적 글로벌 임상 3상이 진행 중이다. 희귀 비만증 치료제 후보물질 'LB54640'의 경우 올해 1월 미국 리듬파마슈티컬스와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해 LG화학은 10%에 가까운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도 꾀했다. 최근에는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음성 두경부암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임상 3상에도 본격 착수했다.

LG화학은 생명과학사업본부의 올해 매출로 1조3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LG화학 관계자는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주력 제품의 지속 성장과 해외 시장에 진출한 제품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것"이라며 "글로벌 혁신 신약 출시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는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홈플러스는 오는 8일까지 설 명절 필수 농산물인 사과, 배, 대파, 계란을 대형마트에서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 대상으로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홈플러스 회원 대상 농수산물 할인

홈플러스는 오는 8일까지 설 명절 필수 농산물인 사과, 배, 대파, 계란을 대형마트에서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 대상으로 할인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설날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진행하는 물가안정 지원 행사의 일환이다. 설 명절 필수 농산물 4종을 농할쿠폰(농축산물 할인쿠폰) 적용 시 30%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홈플러스 자체 할인(최대 20%)을 더해 더욱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CJ제일제당, 세계에 그린바이오·푸드테크 역량 알려

美 조지아주 '2024 IPPE' 참가 축산·사료·육가공 분야 박람회 글로벌 1400개 이상 기업 참여

CJ제일제당바이오사업부문이 세계 최대 규모의 축산·사료·육가공 박람회인 미국 '2024 IPPE'에 참가해 자사의 그린바이오 등 최신 푸드테크를 선보였다고 1일 밝혔다.

IPPE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축산, 사료 및 육가공 분야 국제 박람회다. 1월 30일부터 3일 동안 진행되는 올해 행사에는 전 세계 1400개 이상의 기업과 3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한다.

CJ제일제당은 IPPE에 부스를 열고, 독보적 그린 바이오테크(미생물 및 식물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능성 소재



CJ제일제당의 2024 IPPE 부스에 관람객들이 모여있는 모습.

나 종자, 첨가물 등을 만드는 분야)에 기반한 사료용 아미노산 제품 포트폴리오를 선보였다. 특히 과립 형태로 만들어 기존 분말 제품 대비 편의성을 높인 '베스트아미노 쓰레오닌 프로'와 '트립토판 프로', 동물의 성장에 도움

을 주는 각종 기능성 스페셜티 아미노산 제품들이 관람객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CJ제일제당은 '베스트아미노(BEST AMINO)' 브랜드로 트립토판, 쓰레오닌, 라이신, 메치오닌과 고부가스페

셜티 제품인 발린, 알지닌, 이소류신, 히스티딘 등 총 8종의 세계 최대 사료용 아미노산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트립토판, 알지닌, 이소류신은 글로벌 시장 1위에 올라 있다. 이를 기반으로 최적의 동물 영양 솔루션을 제공하며 '지속가능한 축산'을 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 세계에 걸친 생산기지를 통한 안정적 공급 역량도 홍보했다. CJ제일제당은 현재 북미·남미·중국·동남아에 위치한 글로벌 생산시설에서 다양한 아미노산 제품을 수요에 따라 가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호환생산'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그린바이오 시장상황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며 글로벌 시장을 이끌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BAT로스만스 송영재 신임사장 선임

BAT로스만스가 송영재 신임 사장(사진)을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송영재 신임 사장은 재무 및 전략기획 역량을 기반으로 유럽 및 아시아의 글로벌 담배 시장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은 업계 전문가로, BAT로스만스를 혁신적인 미래로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일반 연초에서 비연소 제품으로의 산업 재편이 진행 중인 국내 담배 시장에서 BAT로스만스의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투자를 위한 경영 효율성을 높여 기업 가치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빛나 기자 vitna@



롯데칠성, 페트병 경량화 플라스틱 줄인다 “상속세 5400억 재원마련 최선의 방안”

연간 배출량 7.8% 감축 기대

롯데칠성음료가 '아이시스' 및 PB제품을 포함한 먹는샘물 전 제품에 병 입구 부분 경량화를 진행한다. 이번 경량화를 통해 생수 제품 플라스틱 배출량은 연간 7.8%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병구 높이를 18.5mm에서 12.8mm로 낮춤으로써 페트병 500ml 기준 프리폼 중량을 13.1g에서 11.6g로 줄이고 신규 뚜껑을 적용한다. 이번엔 진행되는 경량화는 롯데칠성음료가 생산하는 먹는샘물 전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용량별 용기 중량이 최대 12%까지 가벼워진다.

'아이시스'는 출시 이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페트병 경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이시스' 500ml의 경우

출시 당시 용기 무게가 22g에서 현재 13.1g약 40.5% 무게가 가벼워졌다. 이번 경량화로 출시 대비 47.3% 무게가 낮아진 것이다.

롯데칠성음료는 2017년, 플라스틱 배출량 감축을 위해 '아이시스' 제품의 병 입구와 뚜껑의 높이를 낮추어 경량화를 진행하였으나 뚜껑 개봉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후 수년간 연구 및 테스트를 진행한 끝에 용기 병구 높이를 낮추어 플라스틱 배출량을 감축하는 동시에 병뚜껑의 높이는 일반적인 수준으로 유지해 제품 개봉을 편리하게 한 경량화를 적용한다.

'아이시스'는 2020년 국내 최초 무라벨 제품 출시에 이어, 2021년 rPET 기술 및 품질 검증 상용화를 진행한 바 있다. /신원선 기자

송영숙 한미약품그룹회장 OCI그룹과 통합배경 밝혀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사진)이 OCI그룹과의 통합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송 회장은 앞으로도 한미약품그룹이 혁신신약 개발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1일 한미약품그룹에 따르면 최근 송영숙 회장은 사내 임원들과 대화에서 "두 아들이 이번 통합에 반대하는가 처분을 신청한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100년 기업 한미로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약품그룹 관계자는 "임성기 회장 별세 후 부과된 5400억원 규모의 상



속세는 송영숙 회장 가족의 고뇌를 깊게 했다"며 "선대 회장이 한평생 일군 한미그룹을 통째로 매각하는 상황까지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절박한 위기감에 휩싸였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10월 한미사이언스 주가는 3만원 이하로 하락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OCI그룹과의 통합안'은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면서도 창업주의 유산인 '한미의 DNA'를 지키며 연구개발 중심 제약기업으로 단단히 서는 최선의 방안으로 판단된다"는 송영숙 회장의 결단으로 급진적이었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도 송 회장의 결단에 만장일치라는 의사 결정으로 힘을 실었다. /이청하 기자

SPC삼립 '드래곤볼 빵' 출시

SPC삼립이 청룡의 해를 맞아 애니메이션 '드래곤볼Z'와 협업해 '드래곤볼 캐릭터 빵'을 출시했다.

신제품은 치즈케익 속에 고소한 황치즈 크림을 넣어 단짠 맛이 특징인 '손오공 치즈샌드', 달콤한 블루베리 크림의 보랏빛 마블링의 샌드케익 '마인부우 블루베리케익', 드래곤볼 애니메이션 명장면을 형상화해 초코필링과 버터필링이 조화로운 '손오공&트랭크스 퓨전빵', 상큼한 사과 과육이 들어간 앙금을 넣은 '베지터 사과앙금빵' 등 4종이다.

특히 제품 속에 애니메이션 드래곤볼Z 속 캐릭터를 담은 '드래곤볼 피부셀 69종'을 무작위로 동봉해 구매 재미를 더했다. 전국 편의점, 마트, 슈퍼에서 구매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